

<2018년 6월 13일 수요일>

하나님 앞에 행하여라. 행해야 말씀하신다

본 문 마가복음 9장 23절

『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
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“하나님 앞에 행하여라. 행해야 말씀하신다.”

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<국제평화축구대회>를 앞두고,
선생은 약 20일 동안 운동장 검토, 체중 조절 등
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그날 경기를 뛰려고 했습니다.

그런데 첫 경기를 뛰다가
허벅지 뒤쪽에 ‘찍’ 하는 느낌이 나면서
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왔습니다.

아직 몸이 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이니
뛰기 전에 근육을 보호하는 테이핑을 했으면

그 이상은 근육을 쓸 수 없으니 괜찮았을 텐데,
경기 전에 이것을 다 체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

◆ 이날 마음껏 뛰면서 삼위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,
그래서 모두 다 오라고 했는데, 못 뛰니 속상했습니다.

◆ 계속해서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에 통증까지 일어나니,
생각이 깊었습니다.

그때 ‘뭔가 뜻이 있다.’ 생각했습니다.

◆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

‘네가 어디가 아픈지는 너 자신이 제일 잘 안다.

누구에게 말기지 말고, 네가 해. 네가 하면 된다.’ 하셨습니다.

◆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성령께서 급히 깨우시며

“기도하자!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! 네가 해야 된다.

섭리사가 <부활의 때>를 맞았지만

옛것을 장사 지내고 멋있게 부활하여 사는 자가 있고,

그냥 이전처럼 평범하게 사는 자가 있다.

모두 이렇게는 안 된다.

새벽에도 많이 죽어 있다. 새벽을 깨우자!

<새벽>을 잡아야 <하루>를 잡는다.

월명동도 <부활의 역사>다.

더 부활되려면, 네가 자꾸 행해야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래서 섭리사 전체도 이날부터 <새벽>을 깨우게 했습니다.
- ◆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
“다녀야 보인다. 찾는다. 들린다. 얻는다.”
 <들어와도 복, 나와도 복>이라고 하지 않았나.” 하셨습니다.
- ◆ 이 말씀을 전체에게 전해 주고,
 선생도 이 말씀에 따라 즉시 행하여 즉시 얻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구약에서 성약까지 하나님은
<행하는 자>에게 ‘그에 합당한 말씀’을 주시며 역사하셨습니다.
- ◆ <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>도 있었습니다.
 - 이때는 <다음 말씀을 위한 준비 기간>이기도 했고,
 - <더 행해야 말씀하신다는 뜻>도 있었습니다.

이것은 모두 ‘겪은 바’ 이고, ‘눈으로 본 바’ 이고,
 ‘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바’ 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 때로는 “행하여라.” 하시고, 때로는 “잠잠하여라.” 하시고,
 때로는 “담대하여라.” 하시고, 때로는 “순종하여라.” 하십니다.
<잠잠할 때>가 있고, <담대할 때>가 있고, <행할 때>가 있습니다.
 어느 때는 <기도할 때>가 있습니다.

- ◆ “하나님 앞에 행해라.” 하는 말은

“나 여호와와 함께 있으니, 행해 보아라.

내가 볼 테니, 행해 보아라.

너, 내가 보고 있으니 하고 싶지?

지금에 행할 때다. 행해라!

행하면,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잘되고 형통하리라.” 하는 말입니다.

- ◆ 제자들이 성지 땅에 오면

어떤 사람들은 ‘각종 공’ 을 가지고 서 있고,

어떤 사람들은 ‘각종 기구’ 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.

그래서 “너는 왜 거기에 그러고 서 있냐?” 하면,

“선생님 앞에서 행하며 보여 주려고 서 있습니다.” 합니다.

그러면 선생이 말하기를

“진즉 행하지, 내가 결재하고 나서 행하려 하나?

행하고 있으면,

내가 보면서 ‘덜 해라. 더 해라.’ 말하지 않겠냐?” 합니다.

- ◆ 행할 때! <표적>이 일어나고, <능력>도 나가고,
<지혜>도 생기고, <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>하게 됩니다.

- ◆ <행할 것>이 없으면,
 - <자기 재능>을 쓸 수도 없고,
 - <자기 능력과 권세>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.

- ◆ 사람은 ‘힘을 얻기, 힘을 쓰기’ 입니다.

힘을 어떻게 얻고 쓰느냐는

<자기 수준, 자기 생각, 자기 재능 차이>에서 좌우됩니다.

- ◆ 그렇다면 <자기 힘과 재능>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?

<하나님의 생각대로 쓰는 자>가

잘하는 자요, 유능한 자요, 희망을 이루는 자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오늘 말씀은

“하나님 앞에 행하여라. 불 테니까 행해 보아라.

행해야 말씀하신다.” 입니다.

- ◆ 행할 때는 <방향> 없이도 행하지 말고, <목적> 없이도 행하지 말고,
오직 ‘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’ 행해야 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의 말이 나오면, 즉시 행해야 됩니다.
즉시 해야, ‘순간의 기회’ 를 잃지 않게 됩니다.

- ◆ 또한 행할 때는 항상 <자기>만 ‘주인’ 이 아니라
<상대>가 ‘주인’ 이 되기도 하고,
<삼위일체>가 ‘주인’ 이 되시니,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.

가령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

자기가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니

<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>대로 해야 될 것이고,

또 <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의 마음>대로도 해야 됩니다.

- ◆ 사람들은 뭘 행해야 되느냐고 묻는데,

막상 가서 행하고 있으면

“그거 해라. 그것은 하지 마라.” 하게 됩니다.

하나님도 그러하심을 깨닫고, 행하기 바랍니다!

- ◆ 행할 때 <지혜>도 생기고, <지식>도 생기고, <요령>도 생기고,
<힘>도 오고, <하나님의 말씀>도 옵니다.

많이 행해야 많이 얻게 되고, 적게 행하면 적게 얻게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말씀>을 따라서 <주와 같이 행할 때> 얼마나 좋습니까?

주와 같이 일하고, 같이 먹고, 같이 즐기고, 같이 노래하며,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큼니까?

- ◆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.
그러면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.

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빌립아.

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, 나를 알지 못하느냐?

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.” 했습니다. (요 14:8-9)

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게 하시고,

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.

무슨 말을 하는지, 무슨 일을 하는지 와서 보면 알기에,

주님은 늘 행해 주셨습니다.

그것이 <주의 말의 표현, 마음의 표현>이었습니다.

◆ <행하는 자>에게

- ‘생명의 역사’ 가 일어납니다!
- ‘얻는 역사’ 가 일어납니다!
- ‘기적의 역사’ 가 일어납니다!
- ‘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’ 가 일어납니다!
- ‘하나님께서 그 몸을 쓰시고 일하시는 역사’ 가 일어납니다!

◆ 섭리사는 <신학>도 ‘실천 신학’ 입니다.

실천해야만 -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.

실천해야만 -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

◆ <실천자>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, <실천>은 ‘문제 해결’ 입니다.

그러니 답대히 행하기입니다.

속히 빨리 행하기입니다.

주와 같이 행하기입니다.

◆ <때> 지나고 했더니, 일이 안 돼서 틀어졌습니다.

큰일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<뜻>은 다음에 가르쳐 줄 테니, 먼저 행하고 보아라.

사연이 있다. 이것은 은밀한 일이다.

행한 다음에 알게 되리라.” 하십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◆ 오늘 말씀

“하나님 앞에 행하여라.

볼 테니까 행해 보아라. 행해야 말씀하신다.”

◆ <행하는 자>만이

- ‘주의 마음을 받은 자’이며 ‘주의 사고를 가진 자’입니다.

◆ 즉시 행하여 즉시 얻고, 즉시 쓰면서

<번쩍이는 하나님의 역사>에 속하여 <주와 함께 행하기>를

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!

◆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,

성령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,

성령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.

◆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시대 식으로 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.

<자막>

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.

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가 함께하심을 <믿고 행하는 자>에게는

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!

◆ 섭리인 모두 독수리처럼, 치타처럼 빨리 움직이기를 원하노니,

그러한 생각과 실천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! 아멘.